

고전주의 복식의 재등장 배경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은하

한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강사

고대 그리스·로마(Greece·Rome)의 고전주의(Classicism)는 기독교와 함께 서양 문화의 원류로 작용하였다.

고전주의는 잠재되어 있던 회귀의식을 일깨우고 분열된 자아를 과거와 통합시켜주면서 인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역할을 하여왔다.

고전주의는 단순히 하나의 양식을 넘어선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자 유럽 문화의 잠재력있는 전통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대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사회에 편입되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일종의 공인된 가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류에게 동경과 위안의 대상으로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대별 고전주의 복식의 등장 배경과 분석을 통하여 고전주의 복식의 공통적인 특성을 밝힘으로써, 고전주의 복식의 디자인 양식사적 위치를 조명하고 현대의 복식미의 근원을 찾아 복식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 중심의 이론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전주의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 중세 로마네스크(Romanesque), 근세 르네상스(Renaissance), 근대 신고전주의, 현대(20세기 초~2004년)를 시대적 범주로 선정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주의의 개념과 고전주의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등장 배경을 통해 고전주의가 문화와 예술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조임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객관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대별 고전주의 복식의 특성을 고전주의 복식의 특성이 서양 복식의 기본 특성으로써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복식 현상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고전주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고전주의 복식의 디자인 양식사적 위치를 재조명하고 현재 복식 현상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주의 복식은 자연주의(Naturalism)를 반영한다.

고전주의 복식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절제된 단순함과 순수함을 추구하고 인위성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드레이프의 움직임 속에 신체의 노출을 허락하면서, 자연의 모방을 통해 복식미를 발현하고 있다.

둘째, 고전주의 복식은 드레이프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레이프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서양 복식의 기본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다양한 변화가 생기며,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해 우아함이 연출되고 신체와의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셋째, 고전주의 복식은 모방개념으로의 복고주의(Retro) 경향을 띠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 고전 양식의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가장 소박한 본질인 자연스러움이 고대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고전주의 복식의 기본 특징인 드레이프를 이용하여 다양한 변화와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